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개요

- 수집기간: 2018. 5. 1. ~ 5. 29.(총 27건)
- 수집대상: KRE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 사이트 및 지역간담회

□ 지역별 농업정책 현안 및 개선 의견

- 강소농 육성, SNS 활용 교육, 각종 지원사업 등 농정이 현장 보다는 교육자나 일부 농업인에 치중되어 혜택을 보게 되는 것 같음. 농기계 보조 사업의 경우, 보조를 받을 농기계 값이 올라가 사실상 농민이 지불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고 중간 생산자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실정임. 많은 농정이 농민보다는 주변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임. 다른 교육보다도 농산물 품질 및 재배관련 연구에 투자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우선시 하는 농정이 필요함.<이○○, 경북>
- 귀농·귀촌 이후 농촌에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각종 지원이나 보조, 혜택만 찾아다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 귀농·귀촌 정착 문화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마을이장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이나 정보를 얻는 농촌의 특성상 이장에게 지나친 권한 행사가 우려되어 지원사업 등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창구를 다원화해주었으면 좋겠음. 또한 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는 농번기에는 귀농·귀촌인, 공공근로 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주○○, 전남>

- 농업직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현장의 실정을 모르거나 일관되지 못한 업무 수행 등으로 농업인에 혼동을 주거나 비효율적 일 처리가 방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나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농업분야는 최소 근속년수를 두어 담당자의 현장 이해도 제고에 노력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토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치중되어 있는 현 실정을 개선하고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봄.<전○○, 경남>
- 최근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수 등 냉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음. 피해가 크지 않은 때 한 차례 다녀간 조사 외에는 추가 조사가 없었으며, 냉해를 입어 신고해도 보상 또는 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아 매년 피해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임.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상시적으로 시행, 보상범위를 확대해 개선해주기 바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전대비 시스템을 마련해 농업인에 적극 홍보해주기 바람.<배○○, 경남>
- 요즘 농촌은 모내기는 물론이고 마늘, 양파, 감자 수확에다 고추 등 각종 씨앗이나 모종 심기 등으로 제일 바쁜 철을 보내고 있음. 농약이나 농기구를 사러 읍내 한번 나갈 시간이 없을 정도임. 농촌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농약이나 작물영양제, 간단한 농기구나 식료품 등을 차량을 운행해 요일별 마을을 순회하며 제공하면 일손이 부족한 때에 시간도 절약하고 공동구매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주민의 이용도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 일손구하기 어려운 때에 이 같은 사업으로나마 일손을 덜어주면 좋겠음.<최○○, 충남>
- 일반 공산품은 모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데 농약은 소비자가격이 없는 실정임. 농약상마다 가격이 다르고, 부르는 것이 값이니 신뢰하기 어려움. 농약 소비자 가격표시제 시행이 요구됨.<남○○, 전남>
-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해 긍정적인 측면도 많겠으나, 농업만을 생각하면 중앙부처에서 보는 농업의 중요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이전보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데 불구하고 지자체 행정만으로는 농업·농촌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농정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안으로 중앙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 시행되기 바람.<임○○, 경기>

- 기후온난화로 인해 지역별 작목이동, 작부체계가 변화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농정이 더욱 절실한 때라 생각함. 지리적표시제를 생각하면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과 작부체계가 이미 형성돼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지산지소, 로컬푸드, 슬로푸드와 같이 유통비용 절감, 안전 먹거리 제공, 탄소배출량 감소, 경영안정 및 비용 절감, 인건비 절약 등 지역별 특화를 도모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임. 정치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지역별 특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을 연구, 발전해야할 것임.**<임○○, 경기>
- 농산품 포장지원사업을 받으려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GAP를 별도로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해 별도 서류를 준비 중에 있음. 친환경 인증 자체는 이미 농산물이 우수관리 되고 있다는 증빙이 되는데, 행정에 필요대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음. **행정서류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좋겠음.**<이○, 전남>
- 경운기와 우마차가 농기구이던 시대와 그 기준에 맞추어 개설되었던 농로가 지금은 차량과 대형 트랙터가 질주하는 시대가 되었음. 이전과 같이 농로가 좁아 교행할 곳을 찾아 멀리 후진 또는 전진을 하는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음. **차량과 트랙터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농로를 확장해주시기 바람.**<윤○○, 경북>
- 농업관측에 따른 수급전망이 실제와 다를 때가 많음. 표본 정비 등 **농업관측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전○○, 경남>
- 지적경계측량이 디지털화되면서 최근 지적경계에 대한 주민 간 분쟁이 잦은 편임. 불법묘지가 있던 토지에 묘지 철거 또는 토지를 매매할 것을 통지받아 땅주인과 서로 간 합의하에 매매하기로 가격협상을 마쳤는데, 면사무소에서는 불법묘지를 철거하지 않고는 토지거래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음. 해당 토지는 단독번지이며,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에다, 서로 합의하에 매매하는데도 불법묘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니 해결방법이 없어 걱정임. 농지법도 중요하지만, 분쟁의 요소가 되는 부분은 융통성 있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오○○, 전북>